

소통하고 의지하며 코로나19 이겨낸다



누구보다 코로나19 종식을 바라는 155격리병동 의료진들은 오늘도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지난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는 불과 수개월 만에 전세계로 퍼졌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염병 대유행 사태를 선포하기 일주일 전인 2020년 3월 5일, 서울아산병원 62단기병동 간호사들은 155병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선제 격리병동의 시작이었다.

그 후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두 번의 여름을 맞이한 현재, 이쯤하면 이별할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혜숙, 황예진, 방예근 간호사를 비롯한 155격리병동 팀원들의 사투는 오늘도 진행 중이다.

갑자기 다가온 첫 번째 위기

이혜숙 간호사에겐 2020년 3월 31일의 기억이 어제처럼 선명하다. 155격리병동 간호사들이 모여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비한 모의

연습을하기로 했다. 오후 3시, 회의 장소에서 기다리던 그녀에게 수간호사의 다급한 연락이 왔다. 병원 내 확진자가 생겼으니 빨리 155격리병동으로 올라오라는 것이었다.

서둘러 레벨D 방호복을 입은 이혜숙 간호사는 환자를 기다렸다. 확진 환자는 어린아이였다. 그 옆으로는 아이의 어머니가 연신 불안해하며 눈물을 흘리고서 있었다. 집에 있는 자신의 아이가 생각나서 울컥했지만 꼭 참았다. 아이와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후에도 쉴 틈 없이 17명의 아이 환자와 보호자를 병실로 안내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혹여 문제가 생기면 어린이병원 전체를 폐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혜숙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 시료를 들고 무작정 검사실까지 뛰었다. 탈 없이 시료를 맡기고 병동으로 돌아오니 오후 11시 50분이었다. 초록색 가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퇴근 준비를 마치고 나온 그녀의 앞에 고민으로 가득한 표정의 수간호사가 보였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력이 더 필요한데 불려낼 사람 찾기가 고민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이해숙 간호사는 다음날 휴가를 반납하고 출근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시계를 봤다. 새벽 1시였다.

한증막에서 일하는 느낌

오전 6시, 출근한 황예진 간호사는 상황실에서 병원 전산 기록을 보고 환자 파악을 한다. 방호복을 입고 음압병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화장실을 들르는 것은 필수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마친 후에야 옷을 갈아입는다. 온몸을 감싸는 방호복을 입고, 무게가 상당한 전동식 호흡 보호구까지 허리에 매달고 나면, 비로소 음압병실로 들어갈 수 있다.

음압병실에 들어가면 외부는 물론 옆 사람과의 대화도 어렵다. 방호복 때문이기보다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의 소음이 상당한 것이 이유다. 병동에 투입되면, 황예진 간호사는 본인이 작성한 차트에 따라 묵묵히 환자를 돌본다. 이렇게 4시간을 근무하고 스테이션에서 지원 중인 간호사와 교대한다.

“음압병실에서 나오면 머리가 멍한 느낌이 한동안 멈추지 않아요. 전동식 호흡 보호구의 소리가 큼니다. 게다가 보통의 방역 마스크보다 강도 높은 보호구를 쓰고 환자를 돌보는 거니까요. 답답하죠. 일하다 보면 옷 속에 땀이 그대로 고여요. 더운 한증막에서 땀복을 입고 일하는 느낌이라구요.”

이어 황예진 간호사는 “가뜩이나 몸을 굽뜨게 하는 방호복을 입고, 고위험 약물들을 투약하는 일은 긴장된다”면서 “중증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155격리병동은 상시 대비 상태다”고 했다.

두려움, 하나 되어 이겨냈다

정신적으로 고된 일도 많다.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우려 때문에, 확진 환자의 가족들은 떨어져 임종을 맞이한다. 환자가 사망했다라도 CCTV를 통한 면회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확진 환자 가족을 보듬어 주는 이도 155격리병동 팀원들이다.

병원 내 양성 반응이 나온 환자를 격리병동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수가 지레 겁을 먹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수없이 설명해서 결국은 설득한다”고 방예근 간호사는 전했다.

하지만 155격리병동의 분위기가 마냥 무거운 것만 같다면 오산




항상 서로를 믿고, 위기를 극복해 나간 서울아산병원 155격리병동 팀원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은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 나갔다.

이다. 매 순간 다키는 어려움에 맞서 155격리병동 팀원 모두는 항상 서로를 감싸 안고, 위기를 극복해 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유를 되찾는 웃음 역시 155격리병동 팀원들은 잃지 않았다.

방예근 간호사는 “코로나19라는 낯선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 우리 155격리병동 구성원 모두는 똘똘 뭉쳐왔습니다. 내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의 다양한 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우리들은 서로 소통해 나가며,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나갔습니다”고 했다.

이어서 그녀는 “선배 간호사들의 지도와 155격리병동 팀원들 간의 활발한 업무 지원 덕분에, 처음에는 그렇게도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기도삽관 시술 지원이 이제는 능숙해졌다”며 개인의 업무 실력 향상에 대한 만족을 표했다.

팀원들은 자율적으로 단합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복돋움 독서모임이라는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최근에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이란 책을 읽으며 서로가 의견을 나누며 교감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155격리병동의 간호사들은 “현재 155격리병동이 있기까지 감염관리실과 진료지원실, 총무팀, 시설팀, 고객만족팀, 자재팀, 암병원 운영지원팀 등의 부서에서 많은 도움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병동과 중환자실의 eEIDT(유행성감염병대응팀)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환자 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모든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글 편집부 / 사진 민영주 조던 스튜디오